

솔고바이오메디칼 '온열패드'

솔고바이오메디칼이 천연 솜을 가공해 만든 솜 발열 탄소섬유를 내장한 직류방식(DC) 'DC탄소 온열패드'를 내놓았다. 솔고의 'DC탄소온열패드'는 전기 열선이나 온수 삽입 방식이 아닌 원단 자체에 솜 발열체를 발랐다. 열선의 배관이 없어 감촉이 폭신하다.

또 유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1인용 패드의 경우 형광 등 3개(60W)의 전기가요금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난방비 부담도 덜어준다.

락앤락 '햇쌀밥용기' 출시

생활용품 전문기업 락앤락(대표 김준일)이 26일 락앤락글라스 '햇쌀밥용기'를 출시했다.

'햇쌀밥용기'는 미리 해둔 밥이나 국을 1인분씩 냉장고에 보관해 뒀다가 끼니마다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작은 그릇이다. '집밥'을 챙겨 먹기 힘든 맞벌이 부부와 싱글족, 배변 밥 짓기가 번거로웠던 주부들을 위한 아이템이다.

성인(여성·남성) 1인분 기준 320ml, 410ml 두 가지다.

유민에스티, 구매대행 계약

필름형 뉴액자지센서 개발전문업체 유민에스티는 구매대행(MRO) 업체인 아이마켓코리아와 총판 계약을 맺었다. 유민에스티가 보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아이마켓코리아의 영업권 범위는 삼성그룹 전 계열사의 국내외 사업장과 이미 거래 중인 일반기업, 아이마켓코리아가 직접 영업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장 등이다. 올해 유민에스티는 지난해 2배에 달하는 60억원 이상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포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글로벌 경영컨설팅 포럼'이 열린다.

한양대 지식서비스연구소가 주최하고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경보전현원, 코트라, 매경닷컴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창조경제 시대의 경영컨설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경영컨설팅 산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성장 방안을 논의한다. 29일(금)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서울 서초구 코트라 글로벌연수원 3층 상하이홀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2-2000-5736)로 하면 된다.

3D 입체음향시스템 '소닉티어' 박승민 대표

“국내 영화관에선 돌비보다 수준 높죠”

<세계적 음향업체>

1965년 엔지니어 레이 돌비(Ray Dolby)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음향업체 'Dolby Laboratories'를 설립한다. 음향기술을 라이선싱하는 방식으로 카세트·극장 등과 함께 급성장했고 현재 음향기기 각종 표준기술을 선점하며 45억개 기기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돌비'에 도전장을 내민 중소기업이 있다. 바로 국내 음향시스템 업체 소닉티어(대표 박승민)다. 이 회사가 개발한 입체 음향시스템은 전국 14개 상영관에 설치됐다. 반면 돌비의 새로운 입체 음향시스템 '에트모스'가 설치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소닉티어의 입체 음향시스템은 영상 속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좌표를 생성해 소리를 재생한다. 관객은 그 장소에 있는 듯이 실감나는 음향을 체험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집약해 담은 '소닉티어 시네마 프로세서'를 설치하면 8개 이상 스피커가 있는 곳에서 입체음향을 들



박승민 대표가 '소닉티어 시네마 프로세서'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을 수 있다. 박승민 대표는 “아직 시작 단계라 투자방식으로 극장에 설치해 관객 한 명당 456~8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닉티어는 출범 초기부터 기술을 인정받았다. 출범 초기 20여 개 입체음향 기술 관련 특허를 받아 KDB 지식재산펀드(IP)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았다. 기술만 있는 무형 자산업체로서 기술의 시장성을 인정받은

것을 제작하면 그 이후에 출력하는 방식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닉티어 취지에 동참해 설립 단계에 김지운 영화감독이 9000만원을 투자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쥬라기 공원'을 만들 때 벤처 음향 솔루션이었던 DTS에 투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소닉티어의 기술은 '썬나' '설국열차' '하이' 등 최근 개봉한 20여 편 영화에 도입됐고 싸이와 2NE1 등 YG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를 공연을 홀로그래프로 만든 콘서트에도 적용돼 상영 중이다.

소닉티어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비디오와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 표준화 단체인 MPEG가 2015년 1월에 3D 오디오 국제 표준 기술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 이 기준에 소닉티어의 개발 기술이 부합되면 라이선스 활용도는 무궁무진해지기 때문이다. 김지우 기자

LG하우시스 중동 뚫는다

두바이 건축자재박람회 참가

LG하우시스(대표 오장수)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하는 중동 최대 건축자재 박람회 '2013 두바이 국제 건축자재 박람회'에 처음 참가하며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LG하우시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고 있는 이번 박람회에서 상업용 바닥재, 벽지, 인조대리석 등 다양한 건축자 재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26일 전했다.

두바이 국제 건축자재 박람회는 전 세계 2500여 건자재 기업이 참가하고 관람객 약 6만명이 방문한다.

중동을 비롯해 아프리카, 러시아, 인도 등 인근 지역의 무역 중

심지 역할을 하는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 세계 건축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행사다. LG하우시스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을 중동에 알리고 기업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인지도 상승을 통해 향후 중동에서 있을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공공시설 확충 사업에서 기회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황경주 LG하우시스 해외사업 담당 상무는 “중동지역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으로 국내 건설 관련 기업들이 성장의 돌파구로 삼는 곳”이라며 “차별된 제품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글로벌 건축자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홈앤쇼핑, 2년만에 매출 1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홈앤쇼핑(대표 강남훈)이 개국 2년 만에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홈앤쇼핑은 11월 말 기준 연간 취급액 누계 1조원을 돌파함으로써 연간 목표였던 매출 1조원을 한 달 앞당겨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말까지 누적 매출은 1조1000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개국한 홈앤쇼핑은 3개월 만에 취급액 1000억원을 돌파하고 개국 첫째 연매출 7000억원으로 당초 목표 대비 40% 초과 달성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홈앤쇼핑은 다양한 중소협력사 지원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300억원 규모 상생펀드를 조성해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강남훈 대표

10월 말까지 12개사를 대상으로 70억원 대출을 지원했다. 홈앤쇼핑이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 '일사천리'는 올해에도 10개 지자체와 58개 지역 상품으로 확대 진행 중이다.

강남훈 대표는 “정부의 사업승인 조건인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 80% 이상을 준수하면서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한 것은 우수 상품을 공급해준 중소협력사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車부품업체 사장 기부천사 날다

SCL 이상춘 대표 아녀 소사이어터 대상

보우·발레오 등 세계적 유명 자동차 부품회사들에 제품을 공급하며 세계 10여 개국에 매년 500만달러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에스씨엘(대표 이상춘)이다.

1977년 창립 이래 30년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온 에스씨엘은 1990년대 부도 위기를 넘기고, 자체 기술을 개발해 스프링린 제조장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4년 중국 텐진, 2011년 베이징에 생산법인을 세우며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는 보쉬 등 글로벌 차부품사들에 제품을 공급하며 유럽과 북남미 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에스씨엘이 매년 수출하는 규모는 50억원이 넘는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패드 스프링 부품의 80% 이상을 납품하며 지난해 연매

출 1100억원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상춘 대표에게는 늘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있었다. 경복 김전에서 빈곤의 자식으로 태어나 겪었던 가난의 아픔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 이 대표는 “장차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이 단지 돈 때문에 꿈을 버려서야 되겠느냐. 청년의 열의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작은 힘을 보태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았다.

그가 머릿속의 청사진을 마침내 실행에 옮긴 것은 2008년. 사채 111억원을 출연해 상록수장학재단을 세워 5년 동안 학생 1011명에게 장학금 1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국립암센터에 1억원을 기부하고 노인들에게 배낭장 수술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런 식으로 2006년 이후부터 기부한 돈은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열린

제4회 ‘아녀 소사이어터’ 총회에서 대상을 받는다. 아녀 소사이어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표 이동건)의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1억원 이상을 일시적으로 기부하거나 5년 동안 1억원을 나눠낼 때 가입이 가능하다.

모금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독려했던 공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석기·김정범 기자

음식물처리기 매직카라

북미에 200만달러 수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전문기업 매직카라(대표 최호식)가 북미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매직카라는 최근 캐나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전문기업 FCS와 2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매직카라는 FCS를 통해 북미 전 지역에 음식물처리기 ‘스마트카라’를 공급하게 된다.

캐나다는 최근 디스포저(싱크대 부착형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지역이 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일주일씩 보관했다가 버려야 하는 불편한 수거시스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FCS는 디스포저를 대체할 처리기를 찾던 중 스마트카라를 접하고 캐나다 공인 시험성적기관에서 3주간 검증 과정을 거쳐 구입을 결정했다. FCS는 코스트코 10개점에서 스마트카라 테스트 마케팅을 한 뒤 700개점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순우 기자

알립니다

창조적 창업 노하우 공개

매경미디어그룹 경제전문 채널 M머니는 글로벌 창업 성공을 위한 노하우를 제시하고자 ‘2013 대한민국 창조창업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컨설팅회사 ADL과 함께 글로벌 창업 성공 사례를 연구·분석해 유형별 성공 모델을 공개합니다.

◇일시=12월 3일(화) 오전 8~12시

◇장소=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참가신청=창조창업대전 준비위원회 (02)2000-4831

voas@mk.co.kr

주최: MBN미디어(M머니) 매일경제신문사

후원: TheCEO창업경영협회 미래창조과학부 대한상공회의소

※음식은 : 할매순화과 원기회복에 탁월한 공기의 비타민

은퇴를 준비하십니까?
따뜻한 남쪽 땅 전남으로 오십시오!

- 일조량이 가장 많습니다.
- 공기가 가장 깨끗합니다.
- 음이온도 가장 많습니다.
- 생활비·난방비가 적게 듭니다.
- 행복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 스트레스가 가장 적습니다.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1번지로
식품안전 걱정도 가장 적습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061-286-3531~2

GO TO GREEN November, 2013

GOLF FOR WOMEN

WARM UP

매일경제에서 발행하는
골프&라이프스타일 매거진 **골프포우먼**

GOLF FASHION 골퍼를 위한 패션 컬렉션 / 겨울 라운드를 위한 방한 액세서리 / 모피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 부츠 스타일별 쇼핑 리스트
BEAUTY 미니 사이즈 아이템과 대용량 버전 가격도 한눈에 읽기 / 럭셔리 보디케어 / 오일과 수분 제품 경험하기 / 골퍼들이 간편하게 테스트한 헤어 아이템
ENJOY YOUR LIFE 30/40 여성 골퍼들의 골프 라이프에 대한 모든 것 / 무한 가능성, 김도훈·배희경 프로 / 올드 스윙 VS. 모던 스윙 그 여자 골퍼가 선택해 보일 때 / 파워블로그 선정 베스트 클럽

MIT 공학자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창조경제 이야기

리얼 이노베이션

시장에서 통하는 혁신, 창조경제 이야기를 만나다!

INSIDE REAL INNOVATION

▶MIT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교재로 채택
▶백악관에서 혁신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과정을 잘 소개하는 책으로 추천

“이 책은 혁신 시스템에 대한 강력하고도 우려 가득한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들은 현재 우리가 이미 몇 십 년 전에 끝난 버린 근본적 혁신에 기대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가 격정스러운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게리 P. 피사노

유진 피츠제럴드, 안드레아스 왕헬, 갈 수람 공저 · 정은아 옮김 · 장석환 감수 | 316면 | 15,000원

매경출판 Tel : 02-2000-2606 Website 매경출판, 매경 twitter Twitter@maekyung1 facebook facebook.com/mkbooks